



[라이프]
간편식 더 커운다
식품업계
올해도 개발 집중
니



Life

매일 아침 내 손 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와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7개국에 의류기부, 친환경 패션 앞장

“아이들, 따뜻하고 안전하게… 온기 가득한 세상 만들어요”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한세드림

한세드림

아동복 시장은 최근 활발하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다. 다수의 아동복 브랜드를 소유한 한세드림은 구매력을 지닌 MZ 세대 부모들을 겨냥, 성인복 못지않은 트렌드를 주도하며 착한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패션·문화 유통 전문 글로벌 기업 한세에스24홀딩스의 계열사이자 유아동복 전문기업 한세드림은 해외 아동 돕기, 친환경 등 활동을 통해 2021년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아동복계의 대표 기업으로 거듭났다.



한세드림의 아동복 브랜드들.

◆해외 총 7개국 취약계층 아동 대상 후원
국내 대표 유아동복 기업 한세드림은 지난 12월 중순 총 7개국 취약계층에게 대표 품목인 의류와 패션잡화를 통크게 공동 후원하며 눈길을 끌었다.

기부 물품은 한세드림의 모이몰른 및 플레이키즈프로와 한세엠케이의 TBJ, 앤듀 등 대표 브랜드 제품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한세드림은 기업 특징을 살려 의류부터 수유용품, 신생아 완구, 침구류까지 유아동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기부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 기부로 한세드림이 전달한 물품은 총 84억원 어치에 달한다. 기부된 물품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를 통해 니카라과, 타지키스탄, 몽골, 엘살바도르, 라오스,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 7개국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한세드림은 이밖에도 지난 4월 한세엠케이와 함께 남수단 내전 지역 소년들을 위해 50억원 상당 의류를 공동 후원했으며, 5월에는 한국청소년진흥회와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취약계층 지역에 11억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는 등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한세드림은 2015년도부터 매년 해외 공동 기부 활동을 이어왔다. 한세드림과 한세엠케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패션 산업계와 외교적 차원에서 주목받는 대표적 귀감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패션업계 핵심 키워드 ‘친환경’ 주도

한세드림은 지속가능한 패션이 반응을 얻고 있는 시장 흐름에 주목해 지난해 하반기 친환경 의류 라인업의 본격적인 확대에 나섰다. 한세드림이 중점을 둔 부분은 환경을 생각한 소재 활용이다. 아우터 라인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충전재를 다양하게 활용한 점이 눈길을 끈다.

컬리수는 리사이클 다운 충전재를 적용한 ‘모던 스타다운 점퍼’를 선보였다. 재생 가능한 깃털을 재가공한 충전재로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패션 트렌드에 발맞췄다. 모이몰른 역시 ‘책임다운기준(RDS)’ 인증 획득 충전재를 사용한 다운 아우터 라인을 최근 선보였다. 동물 복지 시스템을 준수해 윤리적으로 만든 충전재로 ‘착한 패션’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플레이키즈프로 나이키키즈는 합성 충전재를 사용한 친환경 패딩 아우터를 출시했다. 겨울 아우터 충전재로 주로



한세드림과 계열사 한세엠케이의 기부 후원식 모습. 김지원 한세엠케이-한세드림 대표(왼쪽), 김중곤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김중곤 사무총장. /한세드림

매년 해외 취약계층 의류 기부 활동 지난 12월, 7개국에 84억 상당 전달

지속가능 패션 주목… 친환경 확대 리사이클 충전재·재활용 원사 사용

2013년부터 매년 연탄나눔 봉사활동 어린이 체육활동 위해 면마스크 기부

쓰이는 거위털이나 오리털 대신 촉감과 보온력이 우수한 합성 충전재 ‘신테크 필(Synthetic Fill)’을 사용해 동물 보호와 친환경 메시지를 모두 잡았다.

이밖에 리바이스키즈는 지난 9월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 ‘리프리브(REP REVE)’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라인을 선보였다. 원자재 낭비를 줄이는 친환경적인 제조 공정으로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흡습 및 보온 기능으로 쾌적한 착용감까지 갖춰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7년째 시행했던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한세드림은 추운 날씨를 연탄으로 나누는 분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3년 첫 시작 이후 2019년까지 7회째 각 브랜드 공식 SNS에서 ‘하트릴레이’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 참여로 모인 연탄을 직접 배달한다. 최근에는 2019년 연말에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을 찾아 해당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하트릴레이’는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3명의 친구를 태그하면 사진당 1개의 연탄을 기부하는 이벤트다.

한세드림 매년 임직원 100여 명 정도가 참석해 고객 참여 이벤트와 한세드림 자체 후원을 통해 모인 연탄 총 5000장 가량을 배달해 왔다.

은수빈 한세드림 마케팅팀장은 “한세드림에 보내주시는 고객분들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고, 이웃이 온기 가득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매년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의 체육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한 ‘컬리수 축구 대잔치’, 한세실업 제작의 면마스크 24만장을 사은품으로 배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강원FC 선수 1명 성폭행 혐의 구속… 1명은 영장 기각
▲ ‘FA컵 우승’ 전남, 김영진 수석코치·최효진 코치 선임 /사진 뉴시스

▲ 프로축구연맹, 이기형·김호영 전 감독 등 기술위원 위촉
▲ ‘자금난’ 키움, 70억 유상증자…이장석 전 대표 47억 부담



▲ KBO 총재 “선수 개인별 스트라이크 존 적용…NFT 개발 준비”
▲ 손흥민, m매체 선정 5년 연속 ‘아시아 최고 축구선수’ /사진 뉴시스